

Happy New Year



진실로, 오시내 선교사가족이 2025 년 새해 인사를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2025 년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2025 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5 년은 저희가 선교사로 사역해온지 20 년이 된 해입니다. 20 년의 세월을 돌아보니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모를만큼 짧은 시간이었던것 같습니다. 2010 년에 안식년을 한번하고 작년까지 쉽없이 사역을 달려오면서 올해 안식년을 두번째로 말레이시아에 가지게 되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네팔에서 짐을 싸고 말레이시아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정착금을 네팔 공항에서 훔쳐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팔에 그동안

20 년동안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들인지라 저희 모두는 마음이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그 사건을 가지고 몇일동안 기도와 말씀으로 고민하면서 해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들과도 나눕니다. 20 년전 네팔에 저희가 처음으로 선교사로 갔을때가 주위에 많은 분들은 젊은 두 사람이 선교를 한다는 것에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네팔에 들어갈때 소위 말하면 정착금이라는 것을 단돈 500 불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선교단체의 정책상 최소 3000 불 이상의 정착금을 가지고 정착하게 되어있었는데, 저희는 도와줄 사람도 지원해줄 곳이 없어서 믿음으로 500 불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마저도 기도편지를 써야하는데 디지털 카메라가 고장이 나서 200 불을 카메라 사는데 사용하고나서는 남은돈 300 불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대책없는 저희들의 삶에 필요한것들을 공급해 주시면서 20 년동안 학교 사역을 감당할수 있게 하신것을 보면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들어오게 되면서 다시금 준비했던 모든 정착금이 사라지는 마법과도 같은 상황속에서 저희는 "초심" 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네팔에서 당시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넉넉하지 못한 재정속에서 많은 현지인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가운데 스스로의 무능력을 비판하곤 했는데, 어느날 사도행전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람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라는 말씀을 붙잡고 은과 금이 없는 나의 부족함이 되려 예수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이라고 굳건히 믿으며 말씀을 공부하고 전했던 초심이 기억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말씀을 며칠전 사도행전에서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1 장에 예루살렘교회가 안디옥교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하는데,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 다소까지 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안디옥에서 두 사람은 공동으로 사역을 하다가 사도행전 13 장에 이르면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함으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 첫번째 동네가 "구브로"였습니다. 구브로를 간 이유중에 하나는 아마도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었기 때문이었을겁니다. 그렇게 시작한 바울을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사울은 13 장 9 절에 나왔듯이 바울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고 바울이 기독교 역사의 전면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바울의 3차 4차 선교여행에서 구브로라는 섬은 두번에 걸쳐서 다시 나오면서 그에게 구브로 섬은 선교사역의 "초심"을 기억하게 하는 트리거로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사울로서의 삶에서 바울의 삶을 살게하는 이방인의 빛이 되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했던 그의 삶처럼, 다시 초심을 가다듬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의 삶을 되개겨 봅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되는데, 여러분의 "초심"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금 처음 가졌던 마음으로 올 한해를 살아가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 기도제목

1. 언약학교가 겨울방학기간인데, 많은 선생님들이 고향으로 가거나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는데

오고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 주시도록

2. 말레이시아에서 안식년을 시작하는데, 잘 적응할수 있도록
